

막말·사퇴... 文 리더십 표류 지도부 사퇴 이번주가 고비

〈문재인 대표〉

■ 새정치 내용 일파만파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당내 내용에 휩싸이면서 위기감이 깊어가고 있다.

돌아선 민심을 붙잡을 과감한 혁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싸가지 없는 진보'의 전철을 되풀이, 호남 민심이 요동치면서 외부적으로 신당론의 불씨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표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가 지도부 사퇴 여부 등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내용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을 계기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10일 광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도부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과 비노 진영을 대표하는 수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지도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내 내용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당장, 11일 개최될 예정인 최고위원회

재보선 패배 민심 붙잡을

혁신책 못 내놓고 자중지란

희망 잃은 호남 '신당론' 확산

의가 예정대로 열릴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비판한 박주선 의원에게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려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호남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최고위원 징계론과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내용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신당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지도 말라는 감정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내 내용이 격화되면서 비노 진영에서는 별다른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사퇴를 포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긴급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권 고문은 문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4월 재보선 패배와 관련, "문 대표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교동계 인사들도 당내 내용이 격화되자 문 대표 사퇴 촉구 입장 발표를 뒤로 미루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등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개입,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모든 것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내용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모든 것은 문재인 대표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과감한 혁신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네팔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네팔의 저명 유적 중의 하나인 바산타푸르 왕궁이 파괴돼 폐허로 변했다. 지진 후 13일이 지난 8일 여진이 계속되면서 왕궁 앞 두르바르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하고 있는 주민들. /카트만두=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집도 삶도 '폭삭'... 참혹한 현실에 '망연자실'

네팔 카트만두=최권일 기자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13일째인 지난 8일, 수도 카트만두는 갯빛 도시였다. 지진 피해 수습이 시작됐지만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부족이어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침뿔음이 가득했다.

네팔 트리부반 공항에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과 구호대들이 줄을 서 기다렸고, 공항 곳곳은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구호물품들이 쌓여있었다. 공항 한편에서는 군용 및 민간 헬기들이 굉음을 울리면서 이착륙을 반복했다. 도로 등이 끊긴 산간 마을에 구호품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공항 인근은 '이 곳이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 건물은 없었다. 하지만 중심가로 들어서면서 처참함이 목격됐다. 5~6층 규모의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아 아직도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곳이 있었다. 시신 수습을 마무리한 곳에서



광주 의료진 등 헌신적 봉사

세계 곳곳 따뜻한 구호의 손길에 새 삶의 희망·의욕 다져

는 중장비 등이 동원돼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노점상과 시내 중심가 상점 등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누드라(46)씨는 "많은 시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고향에 피해 복구작업을 도우러 가거나, 여진 공포 등을 피해 도시를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는 지진 이후 90만명이 카트만두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며 '네팔 여행자 거리'로 불리는 두르바르(Dur Bar) 광장도 지진 피해가 컸다.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려 할 곳이 집 잃은 이주민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텐트만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지진 피해 현장 곳곳에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벽보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광장에 자리했던 옛 왕궁 건물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들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다. 미국에서 온 브라운(33)씨는 "트레킹을 왔다가 지진을 만나 카트만두에 체류중"이라며 "4년 전에 한번 봤던 건축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몰랐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8, 9일 한차례씩 여진이 발생해 또다시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나 광주를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의료진과 구호대의 헌신적인 구조와 봉사에 시민들은 한 줄기 희망을 엿보기도 했다. 죽음에 직면했던 시민들은 따뜻한 구호대의 손길에 새 삶의 의욕을 다지는 듯했다.

카트만두 지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은 대형 이재민캠프가 생겨났다. 네팔 NGO 단체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시내 곳곳에서 한국 등 많은 외국 구호대들이 헌신적인 도움을 주고있다"고 전했다.

/cki@kwangju.co.kr

北 응원단 참가·관문점 성화봉송 대형 이벤트 성사 가능성 커졌다

D-53 광주U대회 청신호

오는 7월 열리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U대회)의 흥행을 높여줄 관문점 성화봉송과 북한 응원단 참가 등 대형 이벤트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회성공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남북 관련 스포츠 등 인도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남북 민간단체 기념행사에서도 광주 U대회와 관련한 협력사업 등이 상당

부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북 준비위원회'와 '6·15 공동선언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지난 8일 공동 보도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15일부터 광복 70돌인 8월15일까지를 '6·15~8·15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이승환 광복 70돌 준비위 대변인은

"6·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8·15 행사가 가진 무게중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개최하는 걸로 논의를 했다"면서 "합의에 이르는 못했지만 행사를 크게 하는 걸로 하고, 개최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북한측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에 응원단 파견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받은 느낌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파견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광주 U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취해 무등산까지 봉송하는 방안, 남북 대학생들의 유적 답사 교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북측과 상당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창사 63주년
1949

더욱 편리하고 빨라진 금호고속

서울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가는 방법!!!

답은 "금호고속"입니다.

서울~광주 **120~200회** 운행

버스전용차로 이용 및 속도 상향으로 빠른 운행

경제적인 요금 (우등 26,100원, 일반 17,600원)

15년 연속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 10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 9년 연속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8년 연속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1위 / 3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